

※ 다음주 뉴스레터는 휴간하고, 다음 뉴스레터는 5 월 13 일 발간합니다. ※

Monday, April 29, 2019 (2019-17 호)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日 연휴 '플래시 크래시' 가능성에 대비하는 글로벌 FX 트레이더들
- ◇ (초점)-더욱 강해지는 역외 매수세..달러/원 본격적인 상승결 만드나
- ◇ (초점)-초단기물 급락에도 복원력 없어..FX 스왑시장 '살얼음판'
- ◇ (초점)-GDP 쇼크에 통화정책 방향 계산식 복잡해 저..환율, 새 변수로 급부상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준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내년 치러질 미국 대통령선거 민주당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로이터/브라이언 스나이더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26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61.0	-2.1%	-3.9%	-4.1%	유로	1.1148	-0.9%	-2.8%	-4.4%
100엔 대비	1,037.5	-2.2%	-2.1%	-6.9%	엔	111.58	0.3%	-1.8%	2.8%
유로 대비	1,290.8	-1.1%	-1.1%	0.2%	위안	6.7448	-0.5%	1.9%	-5.3%
위안 대비	172.02	-1.5%	-6.0%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543.33	-0.1%	13.8%	-5.6%
코스피	2,179.31	-1.7%	6.8%	-17.3%	나스닥	8,146.40	1.9%	22.8%	-3.9%
코스닥	741.00	-2.8%	9.7%	-15.4%	S&P500	2,939.88	1.2%	17.3%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37.68	-1.1%	12.7%	-16.2%
국고채 3Y	1.720%	-3.6bp	-9.7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751%	-3.7bp	-13.3bp	-45.9bp	미국채 2Y	2.286%	-9.4bp	-21.2bp	60.7bp
국고채10Y	1.876%	-2.3bp	-7.2bp	-52.1bp	미국채 10Y	2.500%	-6.0bp	-19.1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63.30	-1.1%	39.4%	-24.8%	한국 5Y	31.12	0.54	-6.95	-13.74
금(현물)	1,285.85	0.9%	0.2%	-1.5%	일본 5Y	19.21	-0.04	-2.58	-3.34
TR상품지수	2,347.08	0.1%	-1.0%	0.0%	중국 5Y	40.99	1.53	-25.48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29일(월)>

- 기재부, 경제활력대책회의

<30일(화)>

- 한은,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06:00)
- 통계청, 3월 산업활동동향(08:00)

<5월 1일(수)>

- 산업부, 4월 수출입(09:00)

<2일(목)>

- 통계청,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 IHS 마르킷, 한국 4월 제조업 PMI(09:30)
-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3일(금)>

- 통계청,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29일(월)>

- 유로존, 3월 총유동성(M3) 증가율 · 가계대출 (17:00)
- 유로존, 4월 기업환경지수 · 경기체감지수 ·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18:00)
- 미국, 3월 개인소득 (21:30)
- 미국, 4월 델러스연은 제조업지수(23:30)
- 일본 휴장

<30일(화)>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5월 1일)
- 중국, 4월 NBS 제조업(비제조업) PMI(10:00)
- 일본, 3월 건축주문 · 주택착공 (14:00)
- 유로존, 1분기 GDP 잠정치 (18:00)
- 유로존, 3월 실업률(18:00)
- 미국, 2월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22:00)
- 미국, 4월 시카고 PMI(22:45)
- 미국, 4월 소비자신뢰지수(23:00)
- 미국, 3월 잠정주택판매(23:00)
- 일본 휴장

<5월 1일(수)>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미국, 4월 ADP 전국고용동향(21:15)
- 미국, 4월 마르킷 제조업 PMI 확정치(22:45)
- 미국, 3월 건설지출 (23:00)
- 미국, 4월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 PMI(23:00)
- 일본, 중국, 홍콩, 독일 휴장

<2일(목)>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발표(03:00) 및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03:30)
- 중국, 4월 차이신 제조업 PMI(10:45)
- 유로존, 4월 마르킷 제조업 PMI 확정치 (17:00)
- 영란은행(BOE) 금리발표 및 의사록, 물가보고서 발간(20:00)
- 미국, 4월 챌린저해고건수(20:30)
-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미국, 4분기 노동비용 잠정치(21:30)
- 미국, 4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뉴욕지수 (22:45)
- 미국, 3월 내구재주문 수정치 · 공장주문 (23:00)
- 일본 휴장

<3일(금)>

-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NSA(18:00)
- 유로존, 3월 생산자물가 (18:00)
- 미국, 4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21:30)
- 미국, 4월 실업률(21:30)
- 미국, 3월 도 · 소매재고 잠정치(21:30)
- 미국, 4월 마르킷 서비스업 PMI 확정치 (22:45)
- 미국, 4월 공급관리자협회(ISM) 비제조업 PMI(23:00)
- 일본 휴장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는 최근 박스권을 탈피해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는 달러/원 환율의 향방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들이 예정돼 있다.
- 특히 한국의 4월 수출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에 따라 환율은 상승 추세를 강화할지 그렇지 않으면 단기 고점 확인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 결정될 전망이다.
- 이번 주 예상되는 달러/원 환율 거래 범위는 1145-1170 원이다.
-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돈 1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에도 시장은 소비와 투자의 둔화라는 세부 내용에 주목했고 아울러 부진한 1분기 개인소비지출 결과도 간과하지 않았다.
-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나올 4월 한국 수출입 실적은 단기 원화 향방에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최근 원화가 그 어느 때보다 국내 경제 펀더멘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펀더멘털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약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 부진에 따른 전이효과가 다른 지표와 수급, 그리고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발표되는 4월 수출 실적은 환율에 큰 의미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대외적으로는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다. 글로벌 달러 흐름의 단서가 되는 주요 이벤트인 만큼 국내외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고, 단기 방향성도 만들 수 있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한국의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발표 등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난주 3년물 등 주요 시장금리가 다시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CD 금리도 1bp 하락했다. 다만 달러/원 환율이 증가 기준으로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금리의 추가 하락을 막고 있다.
- 환율이 안정세로 돌아오기 전까지 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장에선 4월 30일부터 5월 1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할 전망이다. 최근 미국

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연준이 정책 기조를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물가 지표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연준이 불과 한 달 전에 올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준 만큼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통계청은 30일 3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1.9%, 소매판매는 0.5%, 설비투자는 10.4%씩 각각 감소했다.
- 다만 1분기 GDP가 크게 부진한 것으로 발표된 직후라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대한 관심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통계청은 내달 2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3월 물가가 2016년 7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인 0.4%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번 물가 발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최근의 국제유가 오름세에도 물가 상승폭이 지지부진할 경우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 한국은행은 30일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발표한다. 다음달 1일에는 한국의 4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된다.



**(초점)-日 연휴 '플래시 크래시' 가능성에 대비하는
글로벌 FX 트레이더들**

시드니 (로이터) - 일본이 전례없는 긴 연휴를 맞게 되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이 데스크를 떠나고 거래량이 매우 적은 때에 '플래시 크래시', 즉 환율이 심하게 요동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다.

일본 금융시장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휴장한다.

신중한 투자자들은 엔화 보유분을 줄이고 외환 익스포저에 대한 헤지를 늘리는 등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여러 머니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이 로이터에 전했다.

일각에서는 '와타나베 부인'으로 일컬어지는 일본 개인 투자자들의 보유분을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의 투자금이 큰 데다, 몰려다니는 성향이 가지고 있어 가격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웨스트팩의 선 칼로우 통화 전략가는 "앞으로 나타날 일본의 외환 유동성 가뭄이 기업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보지만, 투기성 계좌들에 있어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 "기업들은 지난 1월처럼 혼란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 손절 주문이 초래되고 엔이 포함되지 않은 환율에까지 2차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환 헤지 비용을 높이는게 신중한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이미 울들어 두 차례 일본 시장이 휴장일 때 플래시 크래시를 겪었다.

지난 1월 안전자산인 엔 가치가 급등하고 리스크 수요에 민감한 여러 통화들의 가치가 급락했었고, 2월에도 스위스프랑이 크게 요동친 적이 있다.

XM의 마리오스 하디카리아코스 투자 애널리스트는 "나는 특히 다음주 중반, 5월 1일에 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5월 1일은 일본과 중국 뿐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노동절로 휴장한다.

그는 "이날 연준 회의를 앞두고 미국 트레이더들이 일을 시작할 때까지 유동성이 매우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정책 회의를 갖는데, 거래 풀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아주 큰 시장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중국도 또 4월 30일과 5월 2일에 주요 경제지표들을 발표할 예정이며, 미-중 무역협상도 다음주 재개된다.

트레이더들은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트레이더들이 엔 숏포지션을 전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1월 손절 매도로 달러 가치가 몇 분 만에 4엔 가까이 하락했던 상황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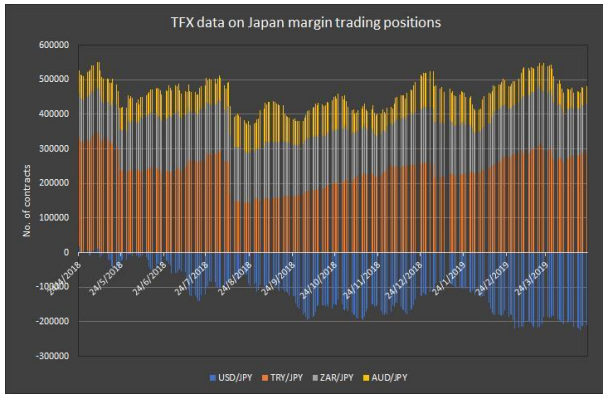
◆ 롱 앤 숏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투자자들이 호주달러 대비 엔을 매수해, 일본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있는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반대 포지션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와일드한 움직임에 대한 보험으로 추천하는 다른 한 가지는 호주달러/엔 환율의 '내재 변동성'에 롱을 취하는 것이다.

도쿄금융거래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와타나베 부인들은 이미 이에 착수해 달러를 빌려 엔을 사들이고 있다. 그들의 순 숏 달러/롱 엔 포지션은 4월 17일 22만 3202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그 규모는 23억 2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들은 또 선호하는 플레이인 호주달러 대비 엔 가치 하락 베팅을 14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줄였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터키 리라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에 대해 상당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있으며, 리라에 대한 롱포지션은 1월 플래시크래시 때의 수준을 넘어섰다.

NAB의 레이 아트릴 통화 전략가는 "엔은 골든위크 동안 리라 (또는 랜드)가 현저하게 약해질 경우 포지션 청산으로 크게 상승하기가 쉽지만, 달러 가치가 현저히 상승하면 반대로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특히 옵션시장에서 엔 콜을 통해 단기 엔 가치 급등에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들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몇 달 간의 통화 변동성 감소는 플래시 크래시 리스크를 높였다.

파생상품 트레이더들은 모든 시장이 계속 조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시장 전반의 내재 변동성 매도 유혹이 있었다. 변동성이 갑자기 급증한다면 이런 포지션 중 상당수가 손실을 입어 숏커버링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1개월 엔 내재변동성은 현재 4.5로, 지난해 골든위크 때의 7보다 낮다.

소시에테제네랄의 케네스 브룩스 통화 전략가는 일본의 골든위크가 지난 몇 년간은 외환시장에 별 영향이 없었다면서 "하지만 변동성이 낮아서 이벤트 리스크가 외환시장을 강타할 리스크가 커졌다. 이 기간 중 이벤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초점)-더욱 강해지는 역외 매수세..달러/원 본격적인 상승결 만드나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글로벌 달러가 상승 결을 강화하고 나서면서 달러/원 환율도 이같은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환율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주 초부터 상승 탄력을 키우기 시작한 환율은 24일 장 중 2017년 7월 이후 최고 수준인 1150원으로 훌쩍 올라섰다.

펀더멘털, 수급, 심리 삼박자가 모두 환율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강도 높은 역외 중심의 달러 매수세가 환율의 상승 탄성을 키우고 있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역외는 85억달러를 순매입해 대규모 달러 매수에 나선 바 있다. 4월 들어 오히려 더욱 강화되는 역외 매수세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역외 투자자 무엇을 봤을까?

글로벌 달러가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다.

양호한 기업실적과 견실한 미국 주택지표 결과에 이날 달러 지수는 22개월래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이런 가운데 부진한 물가 지표에 따른 호주 달러 약세는 이래저래 미달러 상승세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율 인하를 중단할 것이라는 등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제재 예외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세도 부담이다. 그간 국내 외환시장은 유가 상승을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번 유가 상승이 경기 개선이 뒷받침된 게 아닌 공급 부족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것인 만큼 시장은 이를 리스크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원화는 반도체 및 대중 수출 부진과 북미 관계 개선 기대 약화 등에 약세 압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이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유 도입단가 10 달러 상승시 연간 무역 흑자가 100-150 억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25 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1 분기 국내총생산 지표 결과에도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로이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1 분기 GDP 의 전기 대비 성장률은 0.3%,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2.5%로 각각 전망됐다. 작년 4 분기 성장률이 호조를 보인 데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투자 등의 부진이 1 분기 지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 은행의 외환딜러는 "한국의 1 분기 GDP 결과에 환율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결과에 따라 환율이 다시 상승 시도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 달러/원 고점 찾기 이어질 듯

달러/원 환율이 계속 상승압력을 받으며 21 개월래 최고치로 상승한 상황에서 추가 상승 시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달러/원 환율이 1150 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데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수출을 비롯한 펀더멘털이 부진하고 특히 외환시장의 달러 공급이 타이트하게 운용될 것이라는 데 한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은행의 외환딜러는 "펀더멘털 개선이 확인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가운데 달러/원 환율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면서 "기존 박스권이 1140-1160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본다"면서 환율의 본격적인 상승 추세 가능성도 열어뒀다.

(초점)-초단기물 급락에도 복원력 없어..FX 스왑시장 '살얼음판'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달러/원 FX 스왑시장의 초단기물 급락세는 다소 진정된 듯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지난 주중 -3 전 정도에 거래됐던 오버나이트 가격은 23 일 -20 전까지 폭락한 뒤 -10 전 수준으로 반등 마감했다. 하지만 24 일 오전 -13 전에 거래가 체결되는 등 반등 기미를 찾기 힘들다.

초단기물 가격의 왜곡현상이 유지되다 보니 단기 외화자금시장을 둘러싼 불안 심리도 쉽게 걷히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스왑딜러는 "전날 오후부터 비드가 조금씩 나오면서 급락세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다"며 역대 달러가 확실히 타이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월말도 다가오면서 FX 스왑시장은 더욱 얼어붙고 있다.

▲ 달러 여유가 없다?

부활절 연휴와 맞물린 배당 관련 달러 수요가 초단기물의 달러 사정을 악화시켰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시중은행들은 순이자마진(NIM)을 관리하면서 외화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 외화예금 급감으로 달러 여유분이 이전보다 줄어든 영향도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외은의 경우, '볼커룰' 적용 이후 외화자금과 포트폴리오 운용의 달러 편당이 철저하게 구분돼 이뤄지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한 외국계은행의 스왑딜러는 "볼커룰 이후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해 조달한 달러를 머니마켓 운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초단기물 가격 변동성 확대에 단초를 제공했던 일부 증권사의 달러 자금 미스매치 파장 또한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증권사를 중심으로 한 신용 한도 관리가 더 꼼꼼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참가자들은 일부 증권사들이 기간물로 셀 앤 바이 포지션을 구축하고 초단기물로 바이 앤 셀 거래를 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다른 은행의 스왑딜러는 "시장 분위기가 딱히 개선된 게 없다. 외은들도 지켜보자는 분위기인 듯하다"면서 결국 증권사들 거래가 큰 변수라고 말했다.

(초점)-GDP 쇼크에 통화정책 방향 계산식 복잡해져..환율, 새 변수로 급부상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며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자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통화정책 방향 계산식도 복잡해지고 있다.

▲1분기 쇼크에 통화정책 방향 계산식 '혼란'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1분기 GDP가 부진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둔화 폭은 완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로이터통신이 국내외 기관 1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들은 중간값 기준으로 1분기에 GDP가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 GDP 수치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경기 둔화 속도가 완만하다면 통화정책 전망에 근본적 변화가 나타나긴 어렵다는 게 채권시장 참가자들의 판단이었다.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지표가 다소 나쁘다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쉽게 금리를 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진단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2분기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7월까지 기다리자'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한은이 7월에 성장을 전망을 또 한 번 하향 조정할 경우 금리 인하 옵션이 금통위회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늘었다.

반면 한은이 7월에도 올해 2.5% 성장을 전망을 유지할 경우 역캐리를 감수하고 버티던 롱포지셔너들이 코너에 몰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가 6조 7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로 한데다가 전방위적인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에 채권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시나리오도 간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1분기 GDP가 전기 대비 0.3%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1.8% 성장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자 시장 논의의 무게중심은 '금리 인하냐 아니냐'에서 '시기가 언제냐'로 옮겨 가는 모습이다.

▲새 변수로 떠오른 환율..당장 금통위 소수의견 기대는 어려울 듯

문제는 환율이다. 달러/원 환율이 급등하며 다시 자본유출 문제가 부각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둘기파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공론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분기 경제지표에 더해 환율의 안정화 여부가 통화정책 전망의 새로운 변수로 추가된 셈이다.

시중은행의 한 이자율 딜러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왜 금리 인하가 절대 없다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난 정권에서 금리를 다섯 번 인하할 때보다 경제지표가 나쁘고 한은 총재도 같은 사람인데 금리 인하가 절대 없다고 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한은 총재가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 한다고 말한다면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는 안 좋지만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는 어려우니 미국이 인하할 때까지 기다린다가 하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운용팀장은 "고용지표를 봐도 정부 지출로 숫자만 올리고 있을 뿐이지 딱히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제고할 대책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물론 정부가 정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아무래도 장기 성장 전망이 불안해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아니었다면 금리가 다시 전 저점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나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채선물 롱베팅을 했던 개인투자자만 신난 장세"라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한 FICC 운용팀장은 "지금은 수익률 곡선(커브)과 관계없이 무조건 싼 물건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장세"라며 "롱포지션을 들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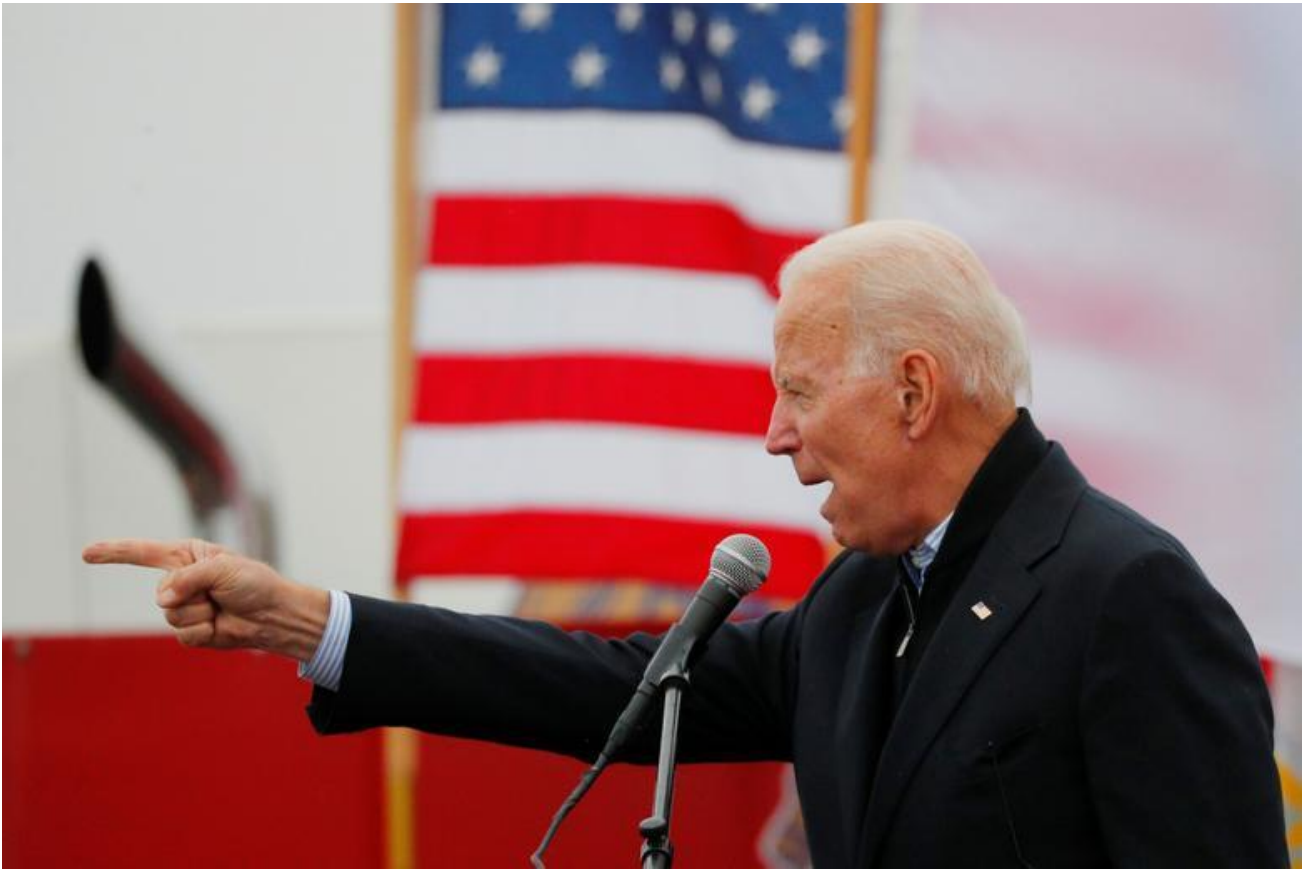
그는 "현시점에선 주식, 채권, 외환의 트리플 약세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시장은 한은보다 좀 더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은 지점의 트레이딩헤드는 "경제지표만 보면 다음 달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환율을 보면 누구도 인하 주장을 강하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환율 때문에 당장 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본다면 여기서 역캐리를 감수하고 더 달리기엔 시장 체력이 약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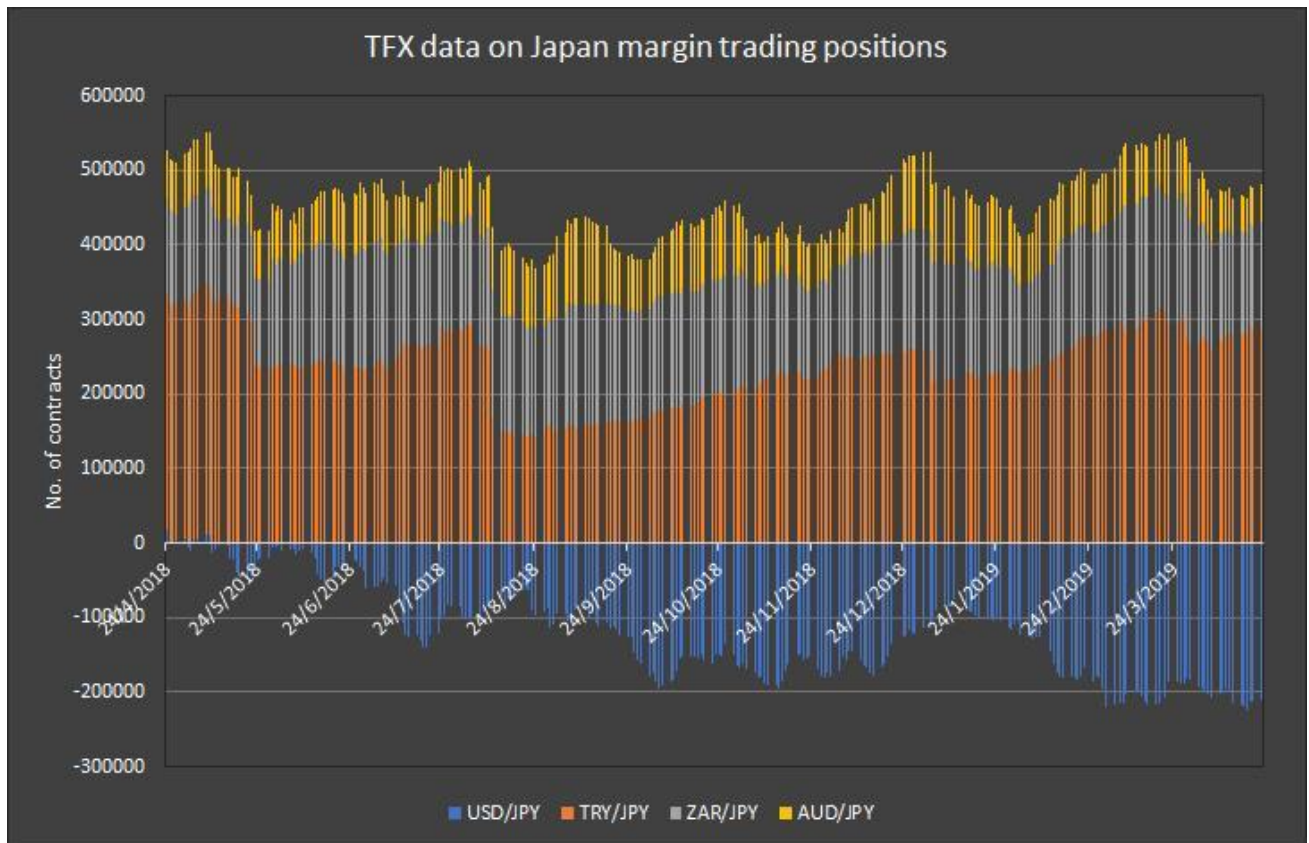
그는 "금리 인하가 목전에 다가와야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대비 10~15bp 정도까지 갈 수 있을 테니 당장은 1.70% 밑에서 지속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일단 환율이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해야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